

평지에 가깝게 세운 백제가람

금산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금산사 미륵전(오른쪽)과 대적광전은 지형을 담은 건축물로 미륵신앙과 화엄신앙을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는 지혜도 담겨 있다.



좁고 높다란 미륵전

넓고 낮은 대적광전

언덕사이 조화있게 배치

이 절에는 국보로 지정된 미륵전과 보물로 지정된 대적광전이라는 빼어난 건물들이 있다. 미륵전은 현존하는 유일의 3층 건물로서 그 희귀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대적광전은 80년대 불에 타버린 것을 다시 복원한 것으로 품격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모든 모습은 불타기 이전의 것을 고증하여 정면 7칸의 기다란 건물이다. 미륵전이 좁고 높은 수직적 형상이라면, 대적광전은 넓고 낮은 수평적 모습으로 대조를 이룬다. 특히 두 건물의 기단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건물 모두, 기단을 낮은 두 개의 단으로 쌓아 기단의 높이감을 줄이고 있다. 대적광전의 형상도 수평적이지만, 높지 않은 기단을 그나마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건물은 아예 대지에 밀착된 듯한 느낌을 준다. 또, 수직적인 미륵전 역시, 기단의 높이감을 줄였기 때문에, 마치 땅에서 불꽃 솟아난 건물같이 보인다. 두 건물은 전혀 다른 감각의 건물로 보이지만, 이처럼 땅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공통성이 있다.

누각인 보채루를 들어서면, 정면에는 열로 길쭉한 대적광전이, 그 오른쪽에

는 대적광전과는 직각방향으로 놓인 3층의 미륵전이 우뚝하다. 한 장면에 두 개의 중심건물이 하나 수평성, 다른 하나는 수직성을 강조하며 자리잡은 것이다. 그런데 유심히 관찰하면, 두 건물 사이에는 송대라는 낮은 언덕이 솟아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송대라는 자연 지형이 중심이고, 그 좌우로 대적광전과 미륵전을 거느리고 있는 형상이다.

미륵전은 미륵불을 모신 미륵신앙의 전당이고,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화엄신앙의 표상이다. 금산사가 진표율사에 의해 미륵불의 사찰로 창건될 때는 미륵전이 중심불전으로 역할했지만, 후대에 화엄신앙이 융성하면서 대적광전이라는 또 다른 중심불전이 첨가되어 2불전제 가람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두 건물 모두 중요했기 때문에 수평과 수직이라는 대조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강조한 것이고, 이 두 극단들을 송대라는 자연지형이 융합시키고 있다.

대적광전의 뒷산은 낮고 툇툇하게 펼쳐져 있다. 뒷산의 모습이나, 그 앞에 놓여진 대적광전의 수평적인 모습이 서로 담았다. 반면, 3층 미륵전 뒤에는 가까운 배경산이 없어서 독자적인 수직성이 더욱 돋보인다. 이 역시 지형을 담은 것이다. 두 건물 모두 평지라는 지형상의 난점을 훌륭하게 극복한 성공적인 작품들이다. 이런 기법을 '경지성'이라 부를 만 하며, 옛 백제지역에 세워진 유사같은 가람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다.

은 건축이란 우선, 땅의 생김새를 잘 이해하고, 지형에 잘 들어맞는 건축이다. 물론 좋은 땅을 고르는 기술·풍수지리술이 뛰어나야 하겠지만, 아무리 불리한 조건의 땅이라 하더라도 좋은 건축가는 땅의 약점들을 치유할 만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연과 친화력이 강한 한국 건축은 더욱 더 땅의 형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백제나 신라시대의 건축물들은 모두 사라져서 정확한 모습을 알 길이 없지만, 이 지역 땅의 생김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략의 윤곽을 상상할 수는 있다. 한국 건축물은 땅의 모습을 담았기 때문이다.

김제의 금산사는 한반도에서도 몇 손가락에 꼽을만한 대가람이다. 과거 전성기 때는 대사구, 공교원, 봉천원이라는 3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졌고, 각 영역에는 수십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현재의 가람은 대사구 영역을 불과하고, 다른 두 영역의 건물들은 다 없어져서 희미한 흔적만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산사도 십여동의 우람한 건물들로 이루어진 대사찰임에 분명하다.

금산사는 모악산 기슭의 넓은 평지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해인사나 부석사와 같은 경상도의 사찰들에서 볼 수 있는 변화 무쌍한 지형의 변주는 들을 수가 없다. 모든 건물들이 놓여있는 자리는 거의 높이 차이가 없는 평지이기 때문이다. 가람에는 중요한 불전과 법당들의 위계가 정해져 있다. 어떤 건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가 되어야 하고, 어떤 건물은 중요도가 떨어져 약식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중요한 건물은 중심되는 위치에 자리잡고, 덜 중요한수록 외곽에 자리를 잡는다. 경사지에 세워진 사찰이라면, 높은 곳에 중심 건물을 위치시켜서 그 중요도를 강조할 수 있지만, 금산사와 같이 평지에 세워진 가람의 중심 건물을 강조하는 입지가 없다.

"인터넷 시민운동이 한국의 부패 정치인들을 폭로하다", "인터넷으로 무장한 시민단체들이 정치인, 관료, 재벌이라는 철의 3각 관계를 부수면서 일반 시민의 지원을 받는 중요한 세력이 되고 있다" (1월18일자 젓 파이낸셜 타임스)
시민단체들이 낙청·낙선운동과 후보자 비로잡기 운동을 잇달아 선언하면서 이들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과거 기상정체에 대한 극도의 냉소 속에 선거에 무관심했던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붐을 이루면서 사이버 공간이 대안 정치무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 시민단체들도 '사이버 시민운동'을 펼쳐기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불교 사이버 시민운동 불붙어

불교정보센터 '불교NGO사이트' 묶어

평불협 내달 종합사이트 '부다넷' 개설

경불련·불교인권위·인드라마도 추진

4백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00년 흥선 시민연대' (www.ngokorea.org)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www.cej.or.kr)을 비롯,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www.koreango.org), 사이버참여연대 (www.peoplecap.net) 등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돕는 정보공개운동을 펼치고 있어 '인터넷 참여정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시민운동의 힘', 괴물과 위기의 매체로서 인터넷의 효용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불교계 시민단체들도 늦은감이 있지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사이버 불교시민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좋은벗들 (www.jungto.org) JTS (www.jungto.org/jts) 불교환경교육원 (www.jungto.org/baea) 생명나눔 실천회 (www.lisa.or.kr)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www.dharmanet.net/

jaega) 등 2-3년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회원을 모집해 온 불교시민단체들은 게시판, 회원 회인 또는 방문객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사이버 불교시민운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교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속보제공, 여론 조성에 발 빠르게 대응해 온 '자비의전화 불교정보센터' (www.budinfo.or.kr)는 재가연대의 지원을 받아 실천승가회와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등 불교단체의 홈페이지를 같은 서버 아래에 두고 생명나눔실천회 등 기존의 불교NGO사이트를 연동시키는 '불교NGO 모음 사이트'로서의 변신을 논의하고 있다. 개별 단체들이 완할 경우 사이트 이름도 바꿀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조국경와통일불교인연회는 2월초에 종합 인터넷 사이트인 '부다넷(buddanet)'을 개설, 불교통일운동

을 대표하는 사이버 공간을 구축한다. 미 U.C.L.A.대 서버와 연동되는 이 사이트는 여행, 관광 등 불교문화 사업을 안내하는 '부다랜드', 통일 및 불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니크', 불교예술과 문화를 소개하는 '코미트'로 나뉘어 운영된다. 부다넷에는 그간 축적된 불교통일운동 관련 자료가 방대하게 게재돼 시민들의 통일 의식 제고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실천승가회 민족화합불교추진위를 비롯,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과 불교인권위원회,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등 2-3월중에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불교인권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교생활공동체와 방송모니터 활동을 강화하고 공동대표인 진관스님 석가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불교생활공동체, 소비자들 연결하는 '사이버 직매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불교정보센터 신희관국장은 "정보화시대에는 정부보다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불교계도 사이버 시민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정부에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네팔 불자모임 '열악한 인권상황' 고발

"한국은 아직도 인권 후진국이다" 특히 이날 눈에 띈 것은 행사도 중 한국에서 사망한 37명의 네팔 불자 사진과 사망원인을 적은 슬라이드 상영시간. 한국에서 압박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이 시간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37명의 사망자 중 70%가 과로사실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심한 노동과 박봉에 고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초 산업기술연수생도가 도입되면서 급증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

지난해 8월말 현재 국내 최류 외국인인 36만 8200여명, 이 가운데 34.2%인 12만6000여명이 비자기한 불법체류자다. 내국인이

몰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불하 이날 눈에 띈 것은 행사도 중 한국에서 사망한 37명의 네팔 불자 사진과 사망원인을 적은 슬라이드 상영시간. 한국에서 압박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이 시간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37명의 사망자 중 70%가 과로사실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심한 노동과 박봉에 고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초 산업기술연수생도가 도입되면서 급증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

지난해 8월말 현재 국내 최류 외국인인 36만 8200여명, 이 가운데 34.2%인 12만6000여명이 비자기한 불법체류자다. 내국인이



○조계종과 이근후교수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한 네팔불자모임.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 박봉에 열악한 생활환경, 한국인들의 멸시가 한국을 만든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불교계는 경부선 산하의 외국인노동자마을(02-757-7388)과 석왕사에서 운영하는 부천외국인노동자집(이사장 영담스님, 032-654-0664) 등의 단체가 95년부터 네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 불교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음 밝히는 책들 3

승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승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승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계부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흥법원 개원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웨덴, 브라질, 프랑스 등에 흥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승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승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큰 의심덩어리!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을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훑 붙 때, 내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부처님께 재를 털면



역시어른 역서어른은 물론이요, 한 가지씩만이라도 읽어야 할 법한 것은 정신으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어야 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전화: 737-0665, 737-8881, 팩스: 737-0637